



생태관광(Eco-Tourism)의 도입방안

경제성장만을 추구해 오던 현대인들은 악화되어가고 있는 환경오염속에서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자연환경의 위기를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지구의 생태를 탐방하고 이를 이해함과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욕구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등장한 생태관광(Ecotourism)의 개념이다. 이 생태관광은 환경 보전 및 지역사회와 주민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구촌의 관광객에 대한 욕구충족을 해주므로써 그 의미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태관광의 현실을 파악하여 그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상욱 /
아태환경경영연구원장

생태관광의 등장 배경 및 의의

날로 악화되는 환경속에 살아가면서 현대인들은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자연환경의 생태적 한계에 대한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함께 관광산업분야에서도 환경윤리와 환경철학에 입각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생태관광(Eco-Tourism)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생태관광(Ecotourism)이라는 용어는 1965년 Hetzer가 문화와 교육, 관광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태적 관광(Ecological Tourism)'이라고 부른 것이 그 시초였으며 그 이후 많은 학자들과 단체들이 생태관광의 개념, 목적, 기능 등에 대해 언급하여 오다가 1993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동아시아국립공원 및 자연보호지구회의'에서 이러한 모든 개념을 포괄하여 생태관광을 "탐방자들이 생태계 혹은 지역 문화에 손상 혹은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악)영향을 일으키는 일없이, 자연적·문화적 지구를 탐방, 이해,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환경교육 및 시설설비를 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광을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생태관광의 주요 기능은 환경보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혜택 제공, 관광객에 대한 만족부여의 세가지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전략의 수립·시행시 생태관광(Eco-Tourism)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고, 부대시설이 필요한 곳을 평가하며, 생태관광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함과 동시에 이러한 형

태의 관광이 생태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특정 자연보호지구의 관광을 개시하기 전에 관광객들에게 제공될 휴양기회의 범위와 탐방자의 수용능력이 고려된 관리계획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그 지역 및 주변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전략의 수립·시행시 생태관광(Eco-Tourism)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고, 부대시설이 필요한 곳을 평가하며, 생태관광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함과 동시에 이러한 형태의 관광이 생태적으로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의 문화유산에 대한 배려와 함께 탐방자 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개별적인 자연보호지구의 수용능력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서 생태관광은 환경보호적인 개발의 한 방법이며,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지구상에 있는 자연 및 문화유산의 보전을 행할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관광을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

대부분의 정부관리자나 정책 결정자는 공원에서 경제적 이익을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채워지지 못하면 경제성이 높은 다른 토지이용을 생각할 것이며,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자연지역내에 대규모 호텔과 고속도로, 골프장 등을 개발하여 많은

여행자들을 관광지로 끌어 들이는데 치중하였으며 이 결과 자연지역의 천연적 가치를 떨어뜨려 결국 그 지역 자연의 보호나 관광객이 자연과 친숙해질 기회를 갖기 보다는 단순한 향락적 여행이 주목적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케냐의 경우 야생동물에 대한 수

렵보다 자연생태계 관광이 더 높은 경제적 이익을 낳는다는 장려정책을 계속해온 개발도상국 중의 드문 나라 중의 하나인데, 이 나라에서는 자연생태계 관광객으로부터 얻은 수입이 소사육을 통해 얻은 수입보다 162배나 많았다.

보통 개발도상국의 이러한 지역의 주민은 비효율적인 경제수단 밖에 없어 생활수준이 아주 낮은 것이 특징이지만 자연생태계관광이 국가정책 중 높은 우선권을 차지하게 되어 관광사업을 실시하는 보호지역 부근 및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생태관광은 지역주민에게 새롭고 확실한 경제수단이 될 것이며, 그들은 그 지역 자연에 대한 실질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지역의 가장 적합한 관리인 또는 보전인이 될 수 있다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

생태관광의 계획

세계 어느 나라 정부이든 자국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이 관리계획에는 보호지역내의 모든 관광활동을 조정하는 명확한 한계와 규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보호지역의 관광과 자연생태계 관광을 둘러싼 모든 것을 포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계획은 여러 부문—정부, 민간기업, 지방주민과 조직, 자연보호 NGO, 국제기관 등—을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수립되어야만 한다. 국가적 차원의 관광회의에서 여행, 호텔, 식당업자 및 자연생태계 관광활동에 관여하는 그 밖의 서비스투자가들을 장려하고, 입장료, 매점, 기부활동 등의 자연생태계관광의 재원확보를 위한 적절한 방법도 도입해야 한다.

생태관광계획에는 도로, 교통, 호텔, 공원의 관리 및 감시, 마케팅 등의 기존의 리조트 관광지계획에 생태관광센터의 개념이 추가되어 여행자에 대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자연해설센터가 포함되어야만 한다. 또 한가지 중요하게 고려할 측면은 건축적 디자인과 건축기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이다. 생태관광센터는 비교적 격리된 자연지역에 세워지므로 이 지역 자연생태계와의 조화가 건축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건물설비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으며 일정한 정도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방법으로 계획되어야만 한다. '에코테크닉'이라고 정의되는 이 방법은 건설계획의 수립과 설비와 구성에 있어 반드시 도입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태양에너지 및 빗물의 재이용, 쓰레기의 재생, 에어컨을 대신할 자연순환 환기장치, 식량생산을 통한 고도의 자급자족,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건축재료의 이용, 자연환경에 어우러진 건축의관 등이다. 다시 말해서 건축물이 주변의 토지, 식물들과 경쟁되거나 눈에 거슬러서는 안 될 것이며, 숙박시설은 소박하고 쾌적해야 하고 요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는 이미 정착된 기존 관광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자연생태계 관광의 잇점이 된다. 자연생태계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은 자연과 그 지역문화와의 만남이며, 콘크리트 정글과 현대 도시생활의 윤택함과 편리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임을 염두해야 한다.

1985년 WTO(세계관광기구)에 의해 '환경보호에 있어서 관광사업의 역할에 관한 일반인을 위한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WTO와 UNEP에 의해 '관광과 환경을 위한 공동선언서'가 서명 조인되었다. 이 두 문서와 관련한 국립 공원에서의 적절한 관광개발을 추진기 위해 WTO는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에 가이드라인 수립을 약속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관광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 증가의 수단과 방법, 국립공원에 적합한 관광수준, 각 지역에 맞는 자연관리방법의 개선, 국립공원내에 적합한 관광의 기본시설 설계, 여행자에 대한 보다 교육적이고 해설적인 서비스의 제공,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의 가치를 여행자에게 보다 정확하게 인식시킬 것 등이다. 최근 IUCN은 '자연보호 수단으로서의 관광'이라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는 관광과 자연보호와의 관계에 상

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도 그것이 좋은 관계인가 아닌가를 증명하는 좋은 모델이 너무도 없음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생태관광을 목표로 자연보호지구를 개방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중요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자연보호지구(The protected areas)는 "영구적으로 보호되는 공적·법적인 상태(지위)"이어야 하며, 또한 공적으로 여러 종류의 보호지구 중 하나의 특별범주(category)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류는 개방될 자연보호지역이 생산물, 레크리에이션 및 생태관광과 같은 다른 목적들을 충족하는 동안 그의 생태적 복잡성을 유지하게 하여 발전계획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적정이용기준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 지구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결정 이후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생태관광과 같은 개발활동이 전개되기 이전에, 보호지역은 전 문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하며, 공식적인 관리계획 및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지구의 현행 이용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고 민간단체, 정치가, 생태관광개발업자,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통하여 관리계획의 목적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 어떤 공식절차(Formal process)와 생태관광개발사업이 자연보호지구의 지정 목적에 합당한지의 여부와 현저한 생태적 위협의 여부를 감안한 생태관광개발안의 선택 및 검토가 자연보호지구 관리기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넷째, 생태관광개발업자들은 자연보호지구의 가치있는 공헌자와 지원자로서 환영받아야 한다. 그들은 엄정한 “실천규약(code of practice)”에 부합되는 사람으로 사전에 주의깊게 선정되어야 하며, 그 실천 규약은 자연보호지구관리계획과 조화되어야 한다.

생태관광 가이드라인 설정

생태관광에 대해 진단하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목적은 보호지역과 관광객에 대한 보다 좋은 운영을 위한 생태관광전략을 수립하는데 있다. 보다 좋은 운영이란 관광을 장려하는 한편으로 지역자연 자원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제한과 규제를 수반한다.

가이드라인은 다음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① 제1단계 : 현재의 관광현황 평가

이 단계는 현행 관광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고서는 자체조사와 인터뷰, 2차적인 정보원으로부터 데이터수집을 통해 작성된다. 공원 관리자와 직원, 정부관리인과 기록, 그 지방 공공지역, 민간기업과 관광업계 대표, 자연보호단체 등에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며 전담조사연구를 고용할 수도 있다.

② 제2단계 : 해당 지역에서의 바람직한 관광수준의 결정

해당 지역에서 어느 수준의 관광이 가장 적합한가를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광객의 요구, 자연자원, 주변 공공지역 등의 균형을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해당지역의 생물학적 또는 사회적 수용력이 생태관광

의 바람직한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 단계는 공원운영에 관한 제3자의 관련조직 전체를 참여시켜 연속적 워크샵 형식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다. 생태관광에 대한 각자가 지니고 있는 목표를 서로가 이해하고, 바람직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으로서 이 토의과정에서 영

세계 어느 나라 정부이든 자국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계획을 세워야만 한다. 이 관리계획에는 보호지역내의 모든 관광활동을 조정하는 명확한 한계와 규제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보호지역의 관광과 자연생태계 관광을 둘러싼 모든 것을 포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두해야 할 것은 자연자원보호라는 대원칙과 반드시 지방주민들이 재정적인 수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제3단계 : 바람직한 관광을 위한 전략 수립

바람직한 수준의 관광부흥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검토하는데, 각각의 역할에 따른 기술과 누가 그 역할을 행할 것인가,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 어떻게 자금을 모으는가 등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이 활동목적이 생태관광 전략의 핵심이 된다.

④ 제4단계 : 생태관광전략의 공식자료의 작성

생태관광전략을 문서로 모아서 출판하고, 가능성있는 자금원, 기술 지원자, 기타 관심을 기울이는 단체에 배포한다. 각 그룹에서 서로 의논된 모든 요소를 기본으로 제4단계로 프로세스를 완성시킨다. 완성

한 문서는 워크샵 참가자 전원이 재검토해야 한다. 진단과 계획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생태관광전략은 올바르게 설정된다.

그러나 이 단계는 단지 생태관광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하기 위한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 단계는 전략에 따른 활동을 실천해가는 일

이다. 전략의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것을 수정하고 첨가한다. 이 과정에서 전략평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몇 가지 절차가 생기게 될 것이다. 전략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생태관광전략은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계획으로서 다른 어떤 개발과 관광활동도 생태관광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외국의 생태관광지 사례

생태관광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첫째로 자연지역이 있을 것, 둘째, 충분히 조사연구되어 조사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것, 셋째, 그 성과를 자연보호체제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및 기구가 있을 것, 넷째, 관광체계중에 고도의 생태학, 지형학, 지질학에 소양이 있는 가이드를 제

도적으로 조직화할 것, 다섯째, 탐방자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려는 자세가 있을 것 등이다. 이 5개 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단순한 자연지역을 여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전제 아래에서 생태관광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몇몇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는 좁은 국토(50,700 km², 인구 약 300만명)에 비해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동식물종이 다양하고(포유류 250종, 조류 849종, 양서류 160종, 파충류 218종, 담수어류 130종, 전세계의 약 4%에 해당하는 식물이 확인되고 있다.) 그 자연의 다양성은 조사 연구와 모험을 하는 사람들 또는 단지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코스타리카에서는 인위적인 개발이 별로 없어 어디에서나 생태관광이 이루어 진다. 국립공원지역에서 특히 활발하지만 그 이외의 경승지와 사유보호지역에서도 활발하다. 총 국토면적의 약 11.2%에 해당하는 573,000ha 이상의 토지가 국립공원과 보호지역으로 되어 법규제를 받고 있다. 모두 3개소로 되어 있는 이들 구역은 열대우림, 열대건조(낙엽림, 화산 등 실로 변화가 풍부한 자연지역이다. 그 외에 동굴과 역사적·인류학적으로 귀중한 유적, 수려한 해안선,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장소(예를 들면, 해안의 거북이 산란지)도 국립공원과 같은 기관(천연자원쉴이나 농수산농 등의 정부기관 이외 민간단체도 참가

하고 있다.)이 관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서로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1주일만에 여러 개소를 한꺼번에 방문할 수 있다.

코스타리카의 생태관광은 이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과 생물학적 다양성에 매료되어 동식물상의 연구를 하려고 찾아든 저명한 과학자들의 발자취에서 시작되어 생태관광의 최초 추진역할을 하였다. 1960년대에 연구자 숫자는 급상승하였고 그들의 출판물이 코스타리카를 단시일내에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 출판물은 현재도 그 대부분이 가이드가 생물학적 현상을 설명하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관광객을 위한 기초정보가 되고 있다.

그들에 의해 이루어진 과학적 연구와 업적은 코스타리카내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국립공원(93년 7월 15번째 Guanacaste 국립공원 탄생)의 창설을 위한 행동을 추진하는 근거가 되었다. 정확히 8년간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새로운 관광붐이 일어났으며 이것은 한정된 과학자와 생물학자뿐만 아니라 폭넓은 층에서부터 초래된 것이었다. 이 새로운 관광붐에 당초 정부기관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지 않았으나 호텔, 숙소, 여행사 등 민간사업자는 국내 및 해외에서 활발한 광고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나라 유일의 항공회사인 LACSA가 홍보지 LACSA World를 사용하여 코스타리카의 자연을 소개한 일대 캠페인은 관광붐에 상승 효과를 더해 주었다.

1985년 코스타리카 관광국(ICT)은 “코스타리카, 모두가 자연”이라는 슬로건하에 이 나라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동식물을 모두 소개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그 결과, ICT

가 1986년에 실시한 코스타리카를 관광지로 선정한 이유를 묻는 앙케이트 결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약 75%로 가장 많았고 문화·정치환경, 동식물상 등이 그 다음으로 주로 차지하였다. 1988년 관광분야 외화소득은 전체 소득액의 13%에 상당하는 약 1억7천만불에 달하였다. 관광이 이 나라 주요 수출상품인 커피, 바나나에 이어 제3위의 외화소득원이 되었다.

생태관광은 일반적으로 교양이 있고 이 나라 관습에 공감하는 관광객들을 불러들였다. 그들은 선진국처럼 정비되지 못한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문화와 환경을 감상하기 위하여 멀리서 찾아온다. 이런 부류의 관광객이 현대사회의 새로운 관광객상을 형성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생태관광을 목적으로 코스타리카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평균적 체류일수는 12~15일이고, 일반관광객과 비교하면 2~3배 길다.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 거기에 따른 관광수입도 커지고, 이 수입은 일반 관광의 경우처럼 편중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지방의 전기, 전화, 도로 등 공공서비스부문의 투자를 하게 되었다. 또한 생태관광은 농촌지역의 직접, 간접적인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되어 지역주민의 자연지역에 대한 보호 의욕을 북돋아주고 있다.

생태관광은 세계각지의 해안과 산악지에 위치한 대부분의 리조트 시설과 같이 거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코스타리카에는 다수의 소자본 즉, 보트나 나룻배의 소유자, 말을 대역하는 농장주 등이 생태관광으로 생계를 구하고 있다. 생태관광시설은 종래 관광산업과

비교하여 약간의 투자와 소박한 숙소(lodge)가 그 전부이다. 숙소는 현대적 호텔과는 달리 그 지방의 양식과 습관에 맞추어 주변 환경에 조화된 디자인과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생태관광에서는 환경보전활동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일도 가능하다. 코스타리카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은 국립공원정비와 새로운 보호구 취득을 위한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사업가중에는 자연 자원에 관한 인식의 깊이를 증명하듯이 시설건설과정에서 삼림의 벌채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천연삼림의 유지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Corcovado 국립공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Marengo 생물기지 등은 그 좋은 예가 되며, Braulio Carrillo 국립공원과 La Selva 보호구 경계에 있는 Rara Avis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자연을 이용한 비즈니스는 이 나라의 자연보호를 위한 시범연구와 환경보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생태관광이 모두 「생명에의 외경」 철학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사회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생태관광은 환경교육의 장이 되어 해외방문자들은 코스타리카의 보호구 분위기를 만끽하고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자연보전의 필요성을 동감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야생생물에 대해서 전보다 많은 애착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에쿠아도르 갈라파고스 국립공원

갈라파고스는 바다로 떨어지는 이구나폭포, 거대한 코끼리거북, 국화과의 고목 스카레시아 등으로

전세계에 알려져 있다. 「진화론의 옛 고향」이라든가 「생물진화의 show window」라고 불리며, 이 섬들은 에쿠아도르의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의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에쿠아도르정부는 1934년에 갈

생태관광이 모두 「생명에의 외경」 철학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평화로운 사회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생태관광은 환경교육의 장이 되어 해외방문자들은 보호구 분위기를 만끽하고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면서 자연보전의 필요성을 동감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야생생물에 대해서 전보다 많은 애착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파고스를 동물보호구로 지정하였으나 보호책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지원하에 1959년부터 다윈연구소의 건설이 시작되어 1964년에 완성하였다. 그 중공식에 맞추어 국제탐험대가 파견되었고, 탐험조사후에 남미대륙의 가야퀴루대학에서 갈라파고스자연보호심포지움을 열고 기본책에 대한 토의가 있었다. 계속해서 탐험대 주요회원은 수도 키토에 가서 에쿠아도르 정부관계측과 회의를 가졌으며, 정부는 갈라파고스 제도의 자연보호를 위해 엄정보호구의 설정, 귀화동식물의 근절, 자생동식물의 보호규제, 사람의 거주지구의 경제설정 등에 대해 다윈연구소의 견해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것이 현재 생태관광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1968년 에쿠아도르 정부는 갈라파고스에 국립공원사무소를 개설하였다. 1970년 다윈연구소는 식물과 동물의 분포상태를 차례로 밝혔으며, 전멸한 것으로 알려진 코끼리거북의 유사종이 살아남은 것이 발견되어 그 증식도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축적은 후에 생태관광 확립

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었다. 그 시기에 갈라파고스에서는 국립공원과 개인소유의 토지 경계는 정해진 바가 없었고, 입주자는 무인토지에 말뚝을 박고 거기에 농업을 하고 있었다. 동식물 채집은 대체로 자유로이 할 수 있고, 채집물을 가지고 나오는 일도 가능하였으며, 어느 섬의 어느 장소를 찾아다니더라도 특별한 규제는 없었다. 이 시절 남극에 관광선을 보내고 있던 뉴욕의 린드브라트르트는 갈라파고스에도 관광선을 취항시키고 있었다. 관광객은 배로 무인도에 운반되어 이구나, 아시카등 많은 종류의 바다섬을 가까운 곳에서 보고 돌아오고 배안에서 숙박하며 다른 섬으로 이동하였다. 이 관광형태는 단순히 동물이 많은 자연안에서 시간을 보낼 뿐이므로 아직 생태관광이라고는 부를 수는 없다.

이 시기에 다윈연구소와 국립공

원사무소에서는 자연보호의 몇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었다. 첫째는 사람들의 거주지구와 국립공원구역의 경계를 정하는 일, 둘째는 국립공원안에는 자연보호의 규제와 다른 구역을 설치할 것, 셋째는 내방자(연구자와 일반관광객)에 대한 규제이다. 이들 검토 성과를 바탕으로 에쿠아도르 정부는 1974년 기본적인 자연보호조치를 결정하였다. 이 때 결정된 국립공원의 구역분할안은 군도의 토지를 5개 구역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자연보호 규제의 강도 순으로 표기하면 엄정보호구역, 원시구역, 탐방가능구역, 특정이용구역, 거주구역 등이다.

다원연구소와 국립공원 사무소에서는 내방자수의 규제, 행동규제, 탐방성과의 고양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만들었다.

- ① 대형 관광선의 수륙 한정
- ② 내방자의 숙박은 모두 선내로 한정
- ③ 내방자는 20~30명 그룹 소단위로 탐방가능구역에 상륙
- ④ 한 그룹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가이드가 1명 동행
- ⑤ 가이드는 그룹간에 자연, 동식물에 대한 상당수준의 해설을 하는 동시에 감시역할도 병행(가이드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스페인어와 영어, 독일, 불어중에 하나는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다원연구소에서 1개월간 강습을 받아 시험에 합격해야 함)
- ⑥ 대형관광선은 가이드를 두지 않으면 출항할 수 없음
- ⑦ 소형선박의 가이드는 연구소의 강습을 받고 자격을 얻게 됨
- ⑧ 육지에서 모닥불 사용은 금지

⑨ 연구 등의 이유로 특별히 캠프가 허가된 경우에도 등유콘로만을 사용

⑩ 캠프지에는 인공물과 쓰레기 등 어느 물건도 남겨둘 수 없음

⑪ 연구허가를 얻어도 일반 내방자 앞에서는 암석, 동식물의 채집은 할 수 없음

연구소의 생물분포와 자연상태에 대한 자료조사는 자연주의자들이 현지에서 탐방자를 감시하는 동시에 상당히 고도의 해설을 함으로써 처음으로 생태관광이라 불리우는 관광형식, 탐방형식의 기초가 된다. 그런, 그것만으로는 아직 생태관광은 성립하지 않는다. 단순히, 자연속에 들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탐방이라면 삼림욕과 하이킹 등이 될 것이고 생태관광이라는 특별한 호칭은 필요없는 것이다.

(3) 베네수엘라

Campamento Canaima는 세계 제1의 낙차(1002m)를 자랑하는 안헤루폭포와 기괴한 고지대 일부를 포함한 베네수엘라 최대(약 300만ha: 세계 제6위)의 Canaima 국립공원의 이용거점이다. 생태관광을 “자연탐승”과 “지역주민”이라는 Keyword로 받아 들인다면, Camp Canaima는 진정한 생태관광의 최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제일의 ‘안헤루폭포’라는 귀한 천연자원이 아니라도 여행자는 테블마운틴과 정글, 사바나 등 태고의 자연과 보트관광, 폭포에서의 수영 또는 인디오 부락(관광용)으로 모험을 부추기고 있다. 공항과 숙소(Cottage) 접수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이드, 식당급사, 침구정리, 선물가게 등을 모두 인디오가

맡아 관광의 효과를 올리고 있다. 이러한 지방 인디오의 참여는 생활 형태에도 큰 변혁을 가져다 주게 되어 본래 정글속에서 가족끼리 분산하여 생활했던 것이 Camp Canaima에 모여 살게 되었으며 학교도 큰 집락을 형성하였다.

(4) 기타 국가

고산지 등산여행(Highland trekking)과 같은 전문화된 관광은 중국과 동아시아의 여러나라들에서 고산지자연보호지구를 위해 가치있는 세수입원을 제공한다.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여러나라 사람들은 도보등산여행을 대단히 즐기는 등산애호가(avid hikers)들이며, 이러한 도보 등산여행의 증가효과는 야외 여행기회를 외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네팔에서는 이미 주요한 관광산업이 되었으며, 서구 및 기타 아시아 사람들도 도보등산여행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자치지역인 티벳, 신장성, 사천성, 대만, 몽골의 고산지대에서는 동아시아의 고산지역에서는 자연보호지구에서 trekker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계획된 추진 캠페인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상업화된 Trekking 여행이 경제적으로 큰 잠재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전에 관광사업으로부터 얻어진 세수입의 일정비율을 자연보호지구 및 지역사회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문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과도한 혼잡으로 인한 trekking 경험이 감소되지 않고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주의 깊은 규제가 필요하다.

생태관광의 향후 전망과 과제

우리나라는 포유류의 경우 호랑이, 표범, 산양, 사향노루 등은 이미 멸종된 지 오래이며, 6·25이전에 그렇게도 흔했던 늑대와 여우는 살상제(플라틸)의 살포와 핑을 잡기 위한 싸이아의 사용으로 2차, 3차 피해를 받아 현재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식물의 경우, 한라산의 돌매화, 시로미, 천마, 풍란 등이 자취를 감춘 지는 이미 오래이고, 산림청은 한국의 식물 1천 49종 가운데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식물은 22종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과 보호구역은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에 직면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이러한 경향에 따른 문제에 대해 거의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많은 자연지역이 단순히 위락적인관광지로 지정되어 자연보호를 위한 올바른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고, 자연생태관광을 원하는 관광객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인원 및 안내직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환경의 파괴는 직접적인 개발행위 뿐만 아니라 그 개발지역의 이용 및 관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생태관광개발은 일시적이거나 산발적으로 계획되고 운영되어서는 안되고 사전예방적이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생태관광은 급증하는 레크리에이션 수요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해당지역의 환경보호와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인정되며, 향후 여타의 국립공원, 대규모 휴양

지 및 레크리에이션지역의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태관광 개발은 본래의 문화상태, 본질적인 생태계의 구조와 과정, 생물학적인 다양성, 그리고 생명체계 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심미적인 관광자원을 계획하고, 개발하여 관리하려는 보다 능동적인

생태관광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국제기구, 정부, 미정부조직, 개발사업자, 관광객의 의식개혁과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공동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활동이다. 그러나 생태계의 구성이 다종다양하고 복잡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제반부문의 공동해결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개발 대상자들이 처한 다양한 복수상황 때문에 관광과 자연 파괴 현상과의 관계를 보편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생태관광 계획원리를 적용하여 개발계획을 시행할 때는 항상 지역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지역주민 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관광산업은 개별경제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고도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분야이고 단기적인 안목에서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질적인 관광을 추구하여야 한다. 자연의 정복을 추구하는 경제 제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환경과 균형있는 조

화를 이루는 관광산업 개발이라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 및 보전노력을 수행하여야 한다.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관광을 즐기는 생태관광 개발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관광 산업체나 관광개발 부문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생

태관광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직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국제기구, 정부, 미정부조직, 개발사업자, 관광객의 의식개혁과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적극적인 공동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부 자연보호단체나 개인들은 오로지 무조건 보호만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늘어나는 관광수요를 생태관광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쌍용그룹이 용평스키장에서의 국제대회 유치로 계기로 동 지역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시설계획과 함께 생태관광의 개념을 도입한 Eco-village 실현을 위하여 자생지 조성과 함께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바, 이는 생태관광 도입의 시작으로 국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산림청 임업연구원(1993) 훼손된 생태계의 Biodiversity 평가 및 복원기법 개발(I)
- 세계자연보전연맹 국립공원 및 자연보호지구위원회 동아시아위원회(1994) 동아시아 자연보호지구 실천계획(안)
- 이광희, 변재진(1992) “환경보전을 실현하는 생태유지관광개발에 관한 연구-녹색관광개발방안의 확산 모색-”, 관광학연구 16호, 한국관광학회 : 141
- 조도순(1992) “경관생태학적 원리를 이용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한국조경학회, 한국생태학회 공동심포지움 : 25-36
- (주)I.R.C(1994) 원주종합레저타운의 생태관광지화를 위한 연구
- 최영진(1994) “자연생태계관광이란 무엇인가”, 자연보호 제14권 제6호
- 한상욱(1990) “우리나라 자연환경보전 현황과 과제”, 쾌적한 환경창조를 위한 생태계의 보전, 제18회 세계환경의 날 기념심포지움, 국립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 3-34
- (1994) 환경백서
- Diamond, J.M.(1975) The island dilemma : lessons of modern biogeographic studies for the design of natural reserves, *Biol. Conservation* 7 : 129-146
- Eagles, Paul F.J. (1984) The planning and management of environmentally sensitive areas, Longman, London : 38
- Edington John M. & Edington M. Ann(1986) *Ecology, Recreation & Tourism*, Cambridge Univ. Press
- Forman, R.T.T. & Godron M.(1986) *Landscape Ecology*, Wiley, New York
- G.C. Saign(1994) *Green Essentials*, Mercury House : 72-77
- Ik-Soo Kim(1994) “The Ecological Approach to Urban Landscape : Some Principles & Land Use Planning”, *Proceedings of the 7th IFLA Eastern Regional Conference in Taipei*
- James O.L.(1990) *Directing Ecological Succession*, Chapman & Hall, London
- Kupchella Charles E, Hyland Margaret c.(1989) *Environmental Science*, Allyn & Bacon, Massachusetts
- Lawson & Baud Bovy(1977) *Tourism and Recreation Development : a handbook of physical planning* Agricultural Press Ltd. : 67
- MacArthur, R.H. & Wilson E.O. (1963) An equilibrium theory of insular zoogeography, *Evolution* 17 : 373-387
- Noss, R.F.(1987) Protecting natural areas in fragmented landscapes, *Natural Areas Journal* 7 : 2-13
- Pickett, S.T.A. & Thomson J.N. (1978) Patch dynamics and the design of nature preserves, *Biol. Conservation* 13 : 68-85
- Tensie Whelan (1994) “Recreation and Tourism”, *The National Audubon Society Almanac of the Environment*, New York, A Grosset/Putnam Book : 137-149
- 高商 進(1992) “研究ついでエコリズム”, *國立公園* No.505 : 27-32
- 公害對策技術同友會(1994) “地球環境問題における 企業對應の現状と評價”, *資源環境對策* 30(13) : 57-63
- 城殿 傳(1990) “ユスタリカにおけるエコリズムの概況”, *國立公園* No.487 : 28-31
- 伊藤 秀夢(1992) “カラバコス國立公園のエコリズム”, *國立公園* No.501 : 8-13
- 滋賀懸(1990) 滋賀懸エコボリス計劃 : 1
- (株)野村綜合研究所(1990) 環境質變化の生物におよぶ影響の解析手法の検討 : 32
- (財)自然環境研究センター(1994) 平成4年度 自然體驗活動推進方策檢討調査報告書
- 海進ゆりえ(1993) “保護區域の管理官のためエコツーリズムの診斷と計劃のガイドライン”, *國立公園* No.514 : 17-24
- 杉山惠, 進士五十八編(1992) 自然環境復元の技術, 朝倉書店
- 武内和彦(1991) 生態都市の發想, 綜合ユニコム